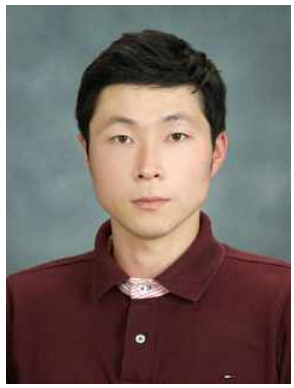
우리나라 품종 재래돼지의 역사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농업연구사 홍준기

전 세계적으로 돼지의 품종은 100여종이 있으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30여종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흰색계통의 랜드레이스종, 요크셔종과 유색계통의 듀록종, 버크셔종이 주로 사육되고 있다. 위의 품종들은 돼지고기 생산체계에서 다른 품종보다 경제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국내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떠나 우리가 꼭 지켜야하는 품종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고유품종 재래돼지이다. 따라서 저자는 우리나라 고유 유전자원인 재래돼지의 역사와 보존현황 및 산업화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재래돼지의 역사

한국의 재래돼지는 만주지역에서 서식하던 대형, 중형, 소형종 중 이동이 쉬운 소형종이 약 2,000여년전 고구려 시대부터 한반도에 유래 정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구한말까지는 고유의 재래돼지 형태를 유지하여 오면서 사육지역의 명칭에 따라 지례돈, 사천돈, 강화돈 등으로 불리어 왔다. 을사늑약 이후 1908년을 전후하여 버크셔종과 요크셔종의 국내 도입으로 도입종과 재래종사이에 교잡화가

실시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재래돼지와 버크셔종의 누진 교배를 장려하여 순수한 재래돼지 혈통은 거의 소멸되는 위기에 처하였다. 단지, 산간오지나 도서지역의 일부에서 순수한 재래돼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기, 재래종에 대한 관심과 유전자원에 대한 인식의 고조로 재래종에 대한 조사와 수집활동이 시작되었다. 국내 각지에서 토종흑돼지 또는 꺼먹돼지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재래돼지 형태를 가진 돼지들을 수집하였다.

1988년, 축산시험장(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충북도종축장(현 충북가축위생연구소)과 제주축산진흥원(제주도 도서지역 및 민가에서 수집)으로부터 9마리(암 5, 수 4)의 재래돼지를 도입하고 증식하면서 재래돼지에 대한 순수화 복원연구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과거문헌의 외모를 중심으로 증식 선발 하였으며, 1998년 재래돼지 외모심사 기준을 설정하였다.

2008년, 국립축산과학원은 지속적인 검정과 선발을 통해 외형복원에 성공하였으며, 품종 혈통으로 최초 등록하였다. 또한 『축진흠돈』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하여 국제적 유전자원 주권 확보에 앞장섰다.

2. 재래돼지의 문헌상 기록

재래돼지 특징이나 특성에 관한 문헌상 기록은 많지 않다. 1920년대 발간된 조선농업편람에는 “재래돼지는 피모가 흑색으로 체격은 왜소하고 체중은 22.5~32.5kg이며, 머리는 길고 뾰족하며, 배는 심히 하수되어 있고, 만숙에다 비만성이 없으나 체질은 강건하고, 번식력도 양호하며, 특히 육미는 조선 사람들의 입맛에 적합한 것 같다.”고 기술하였으며,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성적요람(1927)에는 “조선의 재래돈은 체질이 강건하고 번식력이 강하다. 체격은 극히 왜소하여 6~7관(22.5~ 26.25kg)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성숙이 늦고 비만성이 결핍하여 경제가치돈 중 최 열등하여 이를 개량하는 것이 극히 긴요하다.”라고 기록하여 재래돼지의 개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립 농사시험장 보고서(1946)에는 “1946년 국립농사시험장에서 구입한 재래종으로 보이는 돼지의 체중은 8~10kg 정도로 왜소하며, 비량진직(鼻梁眞直)하고 종(縱)으로 주름이 있고, 배선(背線)은 심히 아래로

구부러지며 임신하면 배가 활처럼 땅에 닿고 번식력도 왕성하고, 저항력도 강하며, 고기는 거의 적육뿐인 흑색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3. 재래돼지 사육현황

국내 재래돼지 사육 두수는 정확히 조사된 바는 없으나 1996년에 전국 8개도의 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38마리(전통지식 모음집 유전자원편 Ⅰ, 농촌진흥청, 1997, p9)이었고, 2000년도에 설문서로 조사한 결과 2,218농가에서 61,968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교배에 의한 잡종후손이 대부분이며 농가에서는 재래돼지와 교배된 것이나 또는 흑색의 돼지를 모두 재래돼지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비교적 순수도가 높은 재래돼지는 국가연구기관이나 각도의 축산연구기관에서 보유한 것이 대부분이다.

4. 재래돼지 혈통유지 현황

2008년 136두를 시작으로 연간 100여두 수준으로 순수혈통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주요 등록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제주 축산진흥원, 충북 축산위생연구소, 산우리 농장이다. 재래돼지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현재는 일반농가보다는 국가기관 중심으로 혈통이 유지되고 있다.

<표 1> 연도별 재래돼지 혈통등록 두수

연도	암	수	합계
2008	112	24	136
2009	44	1	45
2010	111	51	162
2011	13	32	45
2012	60	41	101
누적 합계	340	149	489

<한국종축개량협회, 2012>

5. 재래돼지 산업화 연구

재래돼지는 고기 맛은 우수하나 성장능력이 저조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재래돼지 품종을 보존하면서 재래돼지를 활용한 새로운 돼지고기 생산 체계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돼지고기 3원교잡 생산체계에서 육질이 우수하여 부계 수퇘지로 활용되고 있는 두록종과 재래돼지를 교배하여 차별화된 브랜드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작년 2012년, 2농장에 암퇘지 11복과 수퇘지 2두 보급을 시작으로 농가실증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틈새시장을 목표로 한 차별화된 브랜드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래돼지1>



<재래돼지2>



<옆구리 주름>



<얼굴 주름>